

건설동향브리핑¹⁾ - 건설 경제 및 정책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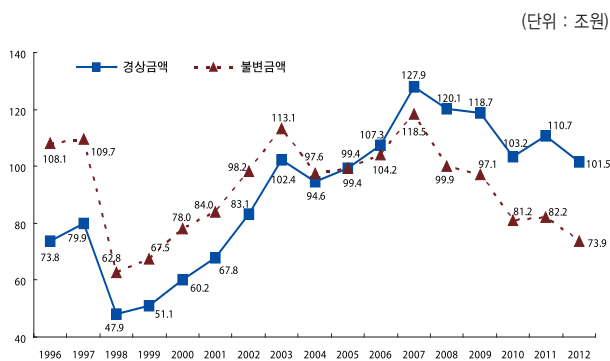
◆ 2012년 국내 건설수주 8.3% 급락

- 향후 전체 산업 생산액 19.4조원 감소, 취업자 수 12만 6천명 감소 유발 -

건설동향브리핑 제400호(2013.02.25) 이홍일 연구위원 & 박철한 연구원

■ 2012년 건설수주 전년비 9.2조원 급감, 7년래 최저치인 101.5조원 기록

2012년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비 8.3% 감소한 101.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금액상으로 2011년도의 110.7조원 대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그림 1. 국내 건설수주 추이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경제·정책·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섹션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2조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더욱이 2012년 수주액 101.5조원은 2005년의 99.4조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2005년 기준 불변 금액으로는 73.9조원에 불과하여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67.5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침체되었다.

■ 공공 및 민간 수주 모두 감소, 민간 수주 부진은 더욱 심각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이 전년비 7.0% 감소했고, 민간 부문은 9.0% 감소하여 민간부문의 침체가 더욱 심각했다. 공공 수주의 경우 지방 이전 기관 신청사 건립 공사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전년비 12.2% 증가한 반면, 주거용 건축 수주가 7.4% 감소하였다. 토목 수주는 발전 공사를 제외한 일반 토목 공사의 발주 부진으로 13.6% 감소했다. 민간 수주는 토목 수주가 0.9% 감소에 그친 반면, 주택 경기 침체 심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주가 12.3% 감소했고, 거시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비주거 건축 수주 역시 10.3% 감소했다.

■ 2013년에도 110조원 수주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함에 따라 2013년 국내 건설수주도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110조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수주는 작년 말 발주 물량의 올해 이연, SOC 예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 수주는 하반기 이후에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70조원대 초반을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1.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전년 대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수주금액	2007	127.9	37.1	21.9	15.2	7.6	7.6	90.8	14.3	76.6	50.6	26	
	2008	120.1	41.8	23.4	18.5	9.3	9.1	78.2	17.9	60.3	35.3	25	
	2009	118.7	58.5	42.8	15.7	7.4	8.3	60.2	11.4	48.9	31.7	17.2	
	2010	103.2	38.2	25.7	12.5	4.7	7.7	65	15.6	49.4	26.9	22.5	
	2011	110.7	36.6	21.9	14.7	7	7.8	74.1	16.9	57.1	31.7	25.4	
	2012	101.5	34.1	18.9	15.2	6.4	8.7	67.4	16.8	50.6	27.8	22.8	
증감률	2007	19.2	25.6	17.6	39.4	47.8	31.8	16.7	46.4	12.5	5	30.5	
	2008	-6.1	12.8	6.5	22	23.5	20.6	-13.9	25.6	-21.2	-30.2	-3.7	
	2009	-1.1	39.8	83.2	-15.1	-21.1	-9	-23	-36.5	-19	-10.2	-31.4	
	2010	-13	-34.6	-39.8	-20.5	-35.8	-6.9	7.9	37.5	1	-15.2	31	
	2011	7.2	-4.2	-15	18.1	47	0.4	14	8.3	15.8	18.1	13	
	2012	-8.3	-7	-13.6	2.9	-7.4	12.2	-9	-0.9	-11.4	-12.3	-10.3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급감으로 전체 산업 생산액 19.4조원 감소 유발 추정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9.2조원이나 급감함에 따라 향후 국내 건설산업 및 타 산업에 전체적으로 총 19.4조원의 생산액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정부 5년 동안에 대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감소가 예상되는 생산액 19.4조원 중 건설산업 자체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9.2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 외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총 10.2조원이다. 건설산업을 제외하면 제1차 금속 제품을 포함한 금속 제품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3.2조원으로 추정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전체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새로운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약 0.3%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액 9.2조원은 향후 12만 6,000명의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직종별로 살펴볼 때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국내 건설수주 9.2조원 감소는 신정부 5년 동안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수주가 특히 부진했는데, 민간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의 경우 거시 경제의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회복이 가능하지만, 민간 주택 수주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택 경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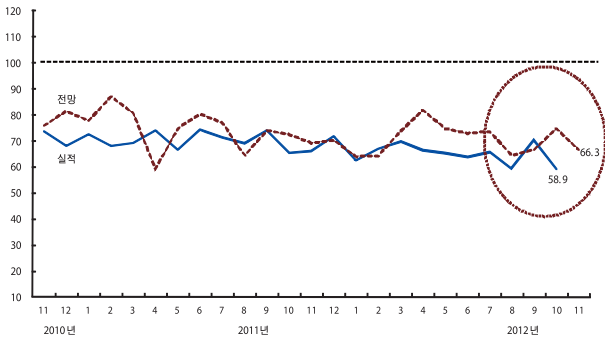
회복을 위한 조속한 정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거시 경제의 회복 없이 민간 수주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정책적인 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 수주의 정상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 거시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공공 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 유지/증가, 생활/방재형 건설 사업을 비롯한 건설 관련 공약의 조속한 시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3년 2월 CBSI 전월비 11.1p 하락한 54.3기록 30개월만에 최저

건설동향브리핑 제402호(2012.03.11) 이흥일 연구위원

■ 2월 CBSI 전월 비 11.1p 하락한 54.3 기록

2013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1p 하락한 54.3을 기록했다. 이로써 CBSI는 지난 1월(전월비 3.5p 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2010년 8월의 50.1 이후 3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BSI는 1월에 이어 통상 2월에도 호한기가 지속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올 2월에는 1월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호한기로 인한 계절적 요인이 CBSI 회복을 제약한 가운데, 한일건설, 동보주택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크게 위축시킨 결과로 보인다. 또한, 2월 자금 관련 지수가 크게 악화한 것을 볼 때 몇몇 건설사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 역시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2.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추이

2. 건설 정책 동향

◆ 공사 입찰 정책, 건설산업의 질적 진화 유도해야

- 건설산업의 허리 살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 없애야 -

건설동향브리핑 제397호(2013.2.4.) 김민형 연구위원

■ 중견 업체의 약화는 건설업계 양극화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지속되는 금융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체들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영향권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며, 대기업과 같이 계열사 시장도 없는 중견 기업의 경우 경영 악화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23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 31위 이하 100위권 이내의 중견 업체들이다. 2012년도 2/4분기 공공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중견 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300억~500억원 사이의 공사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12.7%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30대 그룹에 소속된 11개 건설업체의 수주 잔고 233조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24조 2,000억원을 차지(수주 잔고 대비 평균 10.4% 상당을 계열사로부터 수주)한다.

■ 기술경쟁을 위한 명확한 기준 필요, 성실히 일한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그동안 외형 성장을 추구해온 국내 건설업체들의 호송선 단식(Convoy System) 경영 방식을 지양하고 차별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술력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술제안 입찰 방식과 같이 무조건적이고

과다한 설계 변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술제안을 요구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한편,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막고 업체들의 과다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무화되어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실질화하고, 입·낙찰시 업체 평가에 반영되는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평가제도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찰 업체가 임의적으로 선택 제출한 공사 실적의 시공 평가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공사의 평가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방안 필요하다.

◆ 체계적 인프라 유지 관리로 사전 재난 막아야

- 영, 미 등 선진국의 유지 관리 체계 벤치마킹 필요 -

건설동향브리핑 제401호(2013.3.4.) 강상혁 연구위원

■ 인프라 노후화로 국민 삶의 질 저하 우려돼

우리나라는 인프라의 노후화로 국민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파열 사고가 최소 6건(1월 면목동, 6월 봉천동, 7월 미아동, 12월 번동, 가양동)이 발생. 이로 인해 수만 가구에 수도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도로가 차단되는 등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상수도 파열은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자재 부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 때에 교체해주지 않은 결과이며, 몇 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08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토의 안보는 외부의 테러보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협이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영·미 등 선진국, 1990년대부터 인프라 평가 보고서 발간해 정책에 반영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국가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상태(Condition)와 용량 및 서비스(Capacity&Service), 재정 조달 상황(Funding)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프라 평가 보고서는 인프라 유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인프라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이를 통해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재인식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체계적인 인프라 유지 관리로 사전에 재난 방지해야

인프라의 유지 관리에 보다 많은 자금, 시간,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노후화 방지로 입을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예방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 현재 국내 유지 관리 투자는 신규 건설의 8%로,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1,16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승인하였는데, 이 중 780억 달러는 인프라 재건(노후화된 도로, 학교, 건축물 개선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건설산업 재도약의 필수 조건-사회적 책임 활동 정착

- 건설산업 사회적 책임의 특성과 활동 영역 그리고 과제 -
건설동향브리핑 제401호(2013.3.4.) 김영덕 연구위원

■ 사회적 책임 활동의 국내외 동향

최근 기업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경험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사회 공헌 활동 지출액은 금융 위기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200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개별 국가 차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장려 노력뿐만 아니라 UN, OECD 등이 주도하는 국제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유도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ISO 26000의 제정을 계기로 국제 입찰이나 주식 상장에 사회적 책임 준수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과 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은 크게 윤리 경영 영역과 사회 공헌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윤리 경영 영역은 기업의 이해 관계자인 경영자, 고객, 종업원, 주주, 사회 등이 상호 번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 경영자의 윤리 경영 추진 의

지와 실천을 위한 단계별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투명 경영과 바람직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경영 원칙으로 바람직한 인사 제도 및 노사 관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협력 업체 및 공동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거래 윤리 준수와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발주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품질경영 및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